

# 구례 특산품 판로촉진 상생협약체결

### 구례군, 광주·전남 중기청-전남생산자협동조합 소상공인·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촉진·홍보 협력

구례군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온라인 매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전남생산자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청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장대교 광주·전남 중기청장, 윤준용 전남생협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판

로 확보, 홍보·마케팅 지원 등 구례지역 대표 특산품 판매에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군에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 차별화 상품 개발, 판로·유통지원 등으로 판매촉진은 물론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광주·전남중기청과 전남생협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판로·유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구례5일시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광 명소화하고, 구례지역

대표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여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 곡성군,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접수

### 16일까지 20명 모집

곡성군이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드론 보급률이 높아졌지만 전문적인 교육이나 법령 숙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드론 자격증반을 운영해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신청은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거주자로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3월 16일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용 이외 상업 또는 취미용 목적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교육은 지역 내 드론 교육기관 4개 업체 중 희망하는 곳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군에서 비용 50%(최대 125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은 밭 작물과 수도작 방제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노동력 부족 등에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격증취득 농업인 양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양혜영기자

## 나주시 '전기·수소 친환경차' 상반기 175대 보급 지원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접수...전기이륜차 100대도 4월부터 보급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를 표방하는 전남 나주시가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확대를 통해 친환경차 선도도시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다.

나주시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1차 보급 목표 물량은 전기승용차 75대, 전기화물차 80대, 수소차 20대 등 총 175대이다.

전기승용은 최대 1760만원, 전기화물차는 2440만원, 수소차는 35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3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단체여야 한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영업소·지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구매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차종은 반드시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모델이어야 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보조금 지원이 취소된다.

'환경부 인증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사이트(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농업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이륜차도 4월부터 보조금 지원을 통해 총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청 에너지산업과(061-339-8392) 또는 나주시 전담지역 전기차 보급 1위 도시인 나주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민간부문에 총 1055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상·하반기 목표 물량인 125대를 추가하면 연말까지 총 1500여대

를 보급하게 되며,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비전의 세부 성과지표 중 하나인 '2025년까지 전기차 3000대 보급' 목표의 50%를 달성하게 된다.

친환경차 이용 편의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현재까지 충전소 110곳에 충전기 254기(급속80·완속174)를 설치·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22곳에 추가로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3년 간 도내에서 가장 많은 친환경차 보급에 앞장서면서 에너지수도 비전에 걸 맞는 친환경차 선도도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다"며 "내년에도 400대 이상 친환경차 보급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담양군, 무정면 지적재조사사업

### 경계 협의 현장상담소 운영 호응

담양군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구인 무정면 감정자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상담소를 운영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군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해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소통을 통한 경계협의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경계협의는 최신 항공 영



상자료에 기존 지적도와 제작사측량 자료를 비교하며 변동된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인과의 경계조정 협의를 현장에서 설명하며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담양=박종영기자

## "올해 화순을 빛낼 '스타기업' 찾습니다"

### 제품 개발·정보화·인증·마케팅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화순군이 오는 30일까지 올해 화순군을 대표할 스타기업을 모집한다.

화순군은 기술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당기업을 화순군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화순군에 있고 창업 3년 이상인 기업이 신청

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공장 등 목적이 되었거나, 3개월 내 등록 예정인 기업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 공고는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ntp.or.kr)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usu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 아이템 발굴을 위한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ERP 구축 등 정보화 지원 ▲ISO 인증, 이노비즈 등 인증 지원 ▲특허출원·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지원 ▲포장·디자인 등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을 대표할 스타기업을 육성해 화순을 넘어 전국·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 장성군, 자치분권 실현 토대 마련 '박차'

### 제1기 자치분권협의회 출범

장성군이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기 자치분권협의회 위촉식 및 창립회의를 열었다.

1기 협의회는 '장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장성군의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 자문 및 심의,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제1기 협의회 김재철 위원장은 "앞으로 장성군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정책 개발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